

## 내가 본 어느 베트콩 환자

제일 이등외과병원 안 상 정

### 환자 베트콩

내가 “봉타우”에 있는 우리 한국군 이등외과병원의 수술 전후처치실에 근무하고 있던 지난해 11월달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5, 6명의 부상자가 들것에 담긴채 실리어 들어왔다. 실리어 온 부상자들은 곧 응급처치실로 옮겨졌다. 그들중 유난히 피 투성이가 되어 중상으로 보이는 부상자 한 명이 눈에 띄었다. 나는 빨리 수술에 필요한 전처치를 끝내고 군의관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빨리 수술실로 옮겼다.

“다량의 출혈로 쇼크상태(허탈상태)에 빠져 있으니, 빨리 수술을 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남긴채 바쁜 걸음으로 수술실로 들어가는 군의관들의 얼굴에는 다소 불안한 빛이 보였다.

약 두시간 후에 수술이 끝나고 환자는 후처치실로 옮겨졌다. 아직 마취상태로서 의식은 없었다. 어디를 다쳤느냐고 묻는 나의 질문에 “뒤통자와 소장천공이었습니다”하고

수술을 집도한 군의관이 답변해 주었습니다. 응급환자로 소란하던 전후처치실도 모두 정리되고 병실안은 엄숙하리만치 조용해졌다. 그가 의식을 회복한것은 수술이 끝난뒤 3시간후였다.

흰 유니폼에 흰 캡을 쓴 낯선 얼굴이 조용히 자신을 지켜 보고 있는 모습에 마치 꿈을 꾸는 몽롱한 기분인양 의아스러운 시선이였다. 환자는 몸을 일으켜 보려는듯 했으나 동동이 심한듯 움직이지를 못했다. 양팔에는 blood와 dextrose 주입을 위해 굵은 주사바늘이 꽂혀있다. 주위를 살피고서야 자신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으리라 그리고 또한 낯설은 “대한(대한)”의 얼굴들이 분주히 돌아가는 발소리도 들을수 있었으리라

그는 부부 관통으로 위복한 상태에서 성공적인 수술을 받았던 것이다. 그 다음날 아침이었다. 월남군 정보 장교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다. 월남군으로만 생각했던 그는 베트콩의 한사관이라는 것이다

이름은 “Vo-Van-Loi”, 나이는 20세라고 했다. “로이”는 어렸을 때부터 어느 장글 지대에서 빠빠야, 야지얼때, 빠나나 등을 따먹으며 살아왔다고 한다. “로이”가 자라서 16세가 되던 해에 장글속에서 뜻밖에도 무서운 얼굴 몇몇이 나타나서 따라오지 않으면 죽인다고 총뿌리를 겨누며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베트남인 그들을 따라나서게 된 동기였다고 한다. “로이”는 그들을 따라 그들의 무서운 공산정신을 투입시켜 베트남으로 활약하다가 이번 “Binh Gia” 전투때 정부군의 총에 맞아 부상을 당한 것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로이”가 우리들의 적이기 보다 우리들의 따뜻한 간호를 받아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정보장교가 교대르 “로이”를 감시하게 되었다. “로이”는 언제나 입을 다문 상태였다. 물론 베트남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기 위한 까닭이었지만 적군과는 말도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인 모양이다. 심지어는 수술후 2, 3일이 지나 미음이라든가 주스를 마실 수 있는데도 의식적으로 거부만 했다. 적의 음식마저도 먹지 않았다는 무철한 정신에는 놀랐다. 나는 사람들을 병실 밖으로 나가게 하고, “로이”의 상체를 부축하여 일으키고 미음을 퍼서 입안으로 넣어 주었다. “로이”는 잔뜩 찌프린 얼굴로 짜증만내고 입안으로 들어간 미음을 뱉어 버린다. 나는 그 일을 몇 번이고

거듭했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한두번 꿀떡 삼키게도 되었다. 어느날 아침에 세면을 시켜주고 난 후에 손톱을 깎아 줄 때였다. 한쪽 손을 다 깎고나니 나머지 한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었다. 짜증만 내면 “로이”가 하는 행동이 너무도 기록해서 “로이”를 쳐다 보았을때 처음으로 미소 띤 “로이”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적의 없이 그 보다는 자신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하고 간호해주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았을때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아도 어떠한 친밀감과 신뢰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로이”의 핏기 없는 얼굴에 공포도 불안도 차차 사라지는 듯 했다. 식욕도 좋아지고 수술부위도 현저하게 하루 하루 달라져 갔다. 전신상태도 좋아지고 관통된 상처도 거의 아물 무렵 “로이”는 두명의 월남 헌병에게 호위되어 적십자 표시를 한 헬리콥터에 실려왔다. 중부 월남 어느 곳인가에 있는 포트 재교육 수용소에 간다고 했다. “로이”는 전송나온 다이한(한국 군외관과 간호장교)를 향해 두 손을 모아 활짝하며 연상 허리를 굽힌다. “로이”는 어디론가 끌려가는 공포보다는 이때까지 보지 못한 미소 띤 얼굴이었다. “로이”를 태운 헬리콥터는 우리들의 머리 위를 선회하고 어디론가 멀리 사라져 갔다. 나는 처음으로 베트남을 간호하면서 “생명의 구호에는 적과 적이 있을 수 없다”는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직접 체험했다는 생각에 흐뭇하기만 했다.

자유 월남군의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간호하는 것 이상으로 그에게 특별한 호의나 친절한 간호를 베풀 것은 아니지만 정부군을 대할 때 보dana의 발걸이 자주 그의 병상으로 가게 된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가 자유민의 적이며, 베트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 되어야 할 대상이 병상에서 적이라는 관념에서 중요하기 전에 부상자에게 따뜻한 간호의 손길을 펼쳐 주어야 할 우리들의 임무를 재 인식 했기 때문이다.

“로이”라는 환자로 부러 받은 입원 직후와 퇴원 할 때와의 그 때조적인 모습은 내 앞날의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일이다.

성서에 “원수를 사랑하라”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실천은 다 못한다 해도 고마운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유 월남인들의 가슴에 새겨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았다.

멀리 떠나버린 “로이”가 자유를 되찾게 되는 날 무서운 공산 세력의 허위와 포악성을 폭로하게 될 때 우리들은 우리의 적인 베트콩을 치료했었다는 것 보다는 참다운 우리의 전우를 되살려 냈다는 보람을 가지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하며, 지금은 포로의 몸이 된 그의 앞길에 그리던 자유를 되찾게 되기를 내 마음속 깊이 기원하고 있다.

## 육 아 와 간 호

(구 소아간호)

Gladys Sellev

공 저

홍 욱 순 역

Marry F. Peppev

값

일반가 300원

학생가 210원

반양장, 모조, 국판.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발행